수기

절세위인을 모시여 인생의 영광은 빛난다

나의 외할아버지(리인모)가 오늘도 온 겨레의 기억속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그 이름 빛내이며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바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데 있다.

나의 외할아버지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 1년이 되던 주체83(1994)년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리인모동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대학시절에 읽으시였던 어느 한 나라의 포로송환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랑스포로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것은 결국 령도자를 잘못 만났기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리인모를 데려올 때 그전에 보았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꼭 데려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기는 하였지만 투쟁을 벌려 리인모를 데려왔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바친 애국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여 나의 외할아버지가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바꿀수 있었고 공화국2중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인생의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오를수 있은것이다.

하기에 나의 외할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신념과 의지의 찬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죽어도 못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

이 찬가는 외할아버지의 심장에서 우러나온 진정의 토로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외할아버지의 투쟁사실들을 보고받으신 그날 그를 데려오는것을 조국이 줄수 있는 최대의 믿음으로, 마땅한 도덕의리로 간주하시고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송환작전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할아버지를 우리 당의 자랑,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내세워주시며 송환과 관련하여서만도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한다.

그러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남조선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에 대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온 나라에 발표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나의 어머니가 삼가 올린 고마움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40여년세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라온 어머니의 심정이 가슴속에 맺히여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활달한 필치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있다고 회답서한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또 옥중에서 폐인이 된 외할아버지에게 유능한 치료진을 보내기 위한 제안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게 되자 귀중한 약재만이라도 보내주어 소생시키도록 하신 장군님의 사랑속에 그토록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 《리인모소생의 신화》가 꽃펴났고 온 세상이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승리》, 《20세기의 기적》이라고 격찬한 력사적인 송환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에 이끌려 나의 외할아버지가 드디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그처럼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에는 《숨쉬는 화석》이나 다름없는 한 전사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는 직승기가 날고 땅에서는 구급소생차가 달리는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조국의 품에 안긴 다음에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여 고목에도 꽃을 피우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어제날의 평범한 종군기자였던 전사를 위대한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고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당원증과 금시계를 받아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최대의 영광도 누릴수 있게 해주시였다.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료리사도 불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주석단의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열병식장에서도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려보게 하자고, 고향의 소학교를 리인모소학교로 명명하자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장군님.

그이가 아니시라면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영광의 단상에 설수 있었겠는가.

이런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도 해외동포들이 지성껏 마련한 귀한 이불을 선물로 받으시였을 때에는 수십년세월 차디찬 감방에서 추위에 떨던 전사의 어제날이 그리도 마음에 맺히시여 고스란히 외할아버지에게 보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나의 외할아버지가 헌시에도 썼듯이 끊임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아래 외할아버지는 누구나 누릴수 없는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게 되였다.

오늘 나의 외할아버지는 또 한분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외할아버지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화환도 보내주시고 나의 외할머니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장의를 잘 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고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진정 조국을 위해 바친 자그마한 공적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나의 외할아버지만이 아닌 비전향장기수들이 영생의 언덕에 오를수 있은것이다.

우리 온 가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직했던 외할아버지세대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충정의 대,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것이다.

오 보 람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겨레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2)

윤이상선생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작곡들에 민족성을 구현한 작곡가였다.

그는 민족악기소리를 그리워하며 민족악기와 가장 음색이 비슷한 서양악기의 연주곡을 쓰군 했다.

피리는 오보에, 가야금은 하프, 해금은 바이올린으로 짝을 지웠고 작곡에서도 민족적색채가 진하게 안겨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바라, 무악, 례악같은 우리 민족의 음악용어를 자기의 작곡이름에 붙이였다.

1972년 뮨헨올림픽개막행사에서 그는 도이칠란드의 저명한 성악가, 연주가들에게 조선옷(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을 입혀 우리 민족의 전통가극인 《심청》을 펼치게 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문화를 과시하였다.

《세계현대음악계에서 조선민족특유의 소리를 살린 작곡가》, 《서양음악그릇에 조선민족의 정서를 담은 작곡가》, 《동서양음악의 교량》 등 프랑스, 도이칠란드 그리고 네데를란드를 비롯하여 세계음악계에서 울려나온 찬사들은 윤이상선생이 서구문명앞에 우리 민족문화를 내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렇게 세계속에서 민족의 예술적지위를 한껏 높였지만 선생이 교국이라 생각했던 남조선은 가혹하게도 그를 어둠의 나락으로 내뜨렸다.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동부베를린사건》을 조작하고 윤이상선생부부에게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딱지를 붙이였던것이다.

선생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작품이 될만한 오페라작품을 만들기 위해 1963년 공화국에 있는 강서고분벽화를 찾은것이 《간첩》으로 몰리게 된 리유였다.

1967년 6월 군사독재《정권》은 갖은 모략으로 윤이상선생부부를 남조선으로 랍치하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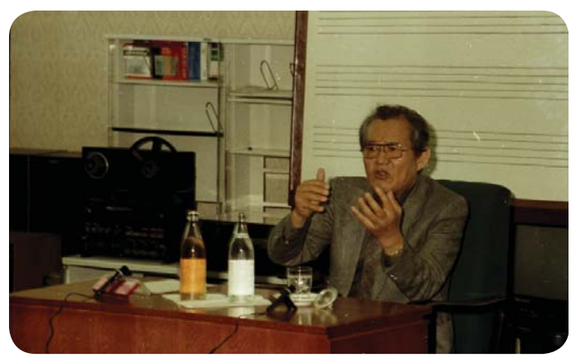
해외에서 랍치하여올 때부터 소음고문을 들이댄 남조선정보부깡패들은 곧 그에게 본격적인 고문을 들이대였으며 끌내는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리였다.

하지만 윤이상선생에게서 창작정신만은 앗아갈수 없었다. 선생은 옥중에서 맨 마루바닥에 5선지를 놓고 꿇어앉거나 엎드려 창작을 하였다.

한편 세계는 윤이상구명운동으로 끓어번졌다.

윤이상선생이 랍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의 문화인들이 《유신》독재자에게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렸고 유명무명의 음악가들이 보수없이 연주회를 열고 선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에로 사람들을 추동하였으며 많은 교회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았다.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항의행동으로 윤이상선생은 2년간의 옥중생활끝에 서부도이칠란드(당시)로 돌아오게 되였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예술가의 가슴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동부베를린사건》을 계기로 윤이상선생은 작곡의 키를 돌렸다.

그의 정치적경향은 결코 5선지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무대에 윤이상선생은 직접 등장하였다.

그는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국제적련대속에 더욱 넓은 범위에로 펼쳐나갔으며 1976년 8월에는 일본의 도쬬에서 진행된 《한국문제긴급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남조선에서 죄없이 감옥에 들어가 악형을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국제사회가 나설것을 호소하는 강연을 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독재자가 사살되자 윤이상선생은 남조선에서 독재가 끌장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한것이였다. 또 다른 파쑈독재자가 나타난것이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비호밑에 1979년 12월 12일 숙군쿠데타를 통하여 군권을 탈취한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에서 도수높은 탄압의 선풍을 일으켰다. 해외에서 적은 힘이나마 독재에 항거하여 량심껏 싸워온 윤이상선생에게 닥쳐온것은 말그대로 어둠, 어둠, 어둠뿐이였다.

숨막혀 질식할듯싶은 바닥없는 어둠이 그의 고향이 있는 남녘땅을 휩쓸었다.

이 현실을 뼈아픈 심정에서 바라보며 그는 1963년 방문하였던 공화국의 모습을 회억하였다. 그럴수록 공화국에 대한 동경은 커만갔다.

본사기자

《전쟁부르는 한미련합훈련 반대!》

-8.15대회 부산준비위원회가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북침전쟁불장난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지 프리덤 실드》)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8.15대회 부산준비위원회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윤석열정권등장후 미국의 신랭전돌격대역할속에서 벌어지는 선제타격, 핵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윤석열《정권》이 입으로는 《대화》를 떠들고 실제로는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쟁연습의 강행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 부산본부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다. 조선반도를 전쟁의 화염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윤석열정부를 우리 로동자들이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단시키는데 로동자들이 앞장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평화통일쎈터 하나》 대표는 《내외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날로 거칠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돌격대역할을 자임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부산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한미일군사동맹은 우리 집을 털어간 도적놈한테 우리 집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꼴》이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절대반대》를 웨치였다.

참가자들은 22일부터 《한미련합전쟁훈련반대 백운포미군기지앞 출근시위》를 벌린다는것을 선포하고 이번 련합전쟁훈련기간 미국의 핵항공모함 등의 입항을 결사적으로 막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언론들은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의 시작과 동시에 백운포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해군사령부 안에 《한미련합훈련 반대!》를 주장하는 삐라들이 뿌려진데 대해 전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입항하는 경우 부산시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행동들 진행-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도 범죄적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행동들이 전개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와 일본의 련대성단체들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일본주재 미국, 남조선대사관앞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항의행동은 6.15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련대하여 7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전세계 100곳 평화행동》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직결되여있다고 하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일본의 시민단체대표는 일본의 날로 로골화되는 군사대국화와 미일남조선군사동맹 구축시도는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일본주재 미국, 남조선대사관을 향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조미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힘있게 웨치였다.

오사까부, 효고현, 미야기현, 홋가이도, 아이찌현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도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는 항의행동들이 진행되였으며 여기에는 총련을 비롯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의 여러 련대성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섬나리에 재침의 문을 열어주려는 특등매국노들

오는 29일은 일제가 불법무효의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는 날이다.

1909년 당시 내각회의에서 《조선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판도의 일부로 하는것은 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강도적결정을 채택한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의 국가실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마침내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위협과 공갈로 침략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고 그것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공포하였다.

이처럼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이나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폭압통치에 매달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떠선 우리 겨레를 100여만명이나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공사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가는 등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조선의 말과 글, 지어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날뛰였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자원을 파괴, 략탈하는 등 조선민족자체를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참으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을 영원히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악착한짓을 다한 일제의 죄행은 천년, 만년이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하여 조선사람모두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울수 없는 가슴속아픔과 피맺힌 한을 안고 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은 심히 억제되고 국토량단과 전쟁참화 등 형언할수 없는 비극까지 겪게 되였다.

일본은 패망후에도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불법무효한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였다.》고 하면서 력사외곡과 독도강탈, 반공화국제재와 반총련소동,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여왔다.

이렇듯 일본것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야 할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떠들며 친일매국행위를 로골적으로 일삼고있다.

얼마전에도 윤석열역도는 《광복절경축사》라는데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느니, 《주권문제의 충돌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일본것들과의 관계개선분위기를 마련해보려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리였다.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보려고 비굴하게 놀아대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보상문제에서도 박근혜집권시기의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존중립장을 표시하는가 하면 일본전범기업자산매각과 관련한 남조선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심의불충분》이라는 리유를 들어 무기한 연기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상화와 《한미일3자군사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는 등 일본과 반공화국대결공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반도를 다시 집어삼키려고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같은 왜구들에게 재침의 문을 열어주면서까지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공조를 강화하려는것이 특등매국노들인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흉심인것이다.

이를 빤드름히 들여다본 섬나라족속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형》의 자세로 남조선을 동생처럼 대해야 한다느니, 《독도령유권》을 양보없이 주장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

도수를 넘은 역적패당의 외세의존과 사대굴종이 간특하고 흉악한 일본것들의 오만성만을 키워주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을 존재방식으로 하는 극악한 대결광신자이고 희세의 역적무리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파멸에로 기울어지는 운명을 미일상전들에 대한 사대매국행위로 지탱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지만 그럴수록 대외적고립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뿐이다.

우리 겨레는 친일역적무리들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일제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치떨리는 만고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방 철 용